



미주 한인 발달장애 사역기관

ONE Ministry

The Monthly Newsletter

April 2020

Issue 12

Photo Gallery : Spring Santa 이벤트 출품작



CONTENTS

Photo Gallery

.....Page 1

ONE Ministry Plan For April

.....Page 1

원미니스트리 사역일지

.....Page 2

Tea with ONE Ministry Family

.....Page 3

정보의 창

.....Page 4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Page 4

ONE Ministry Plan For April

1. 원미니스트리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모임은 COVID-19로 당분간 쉽니다.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또한 모두가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2. 4월 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 (World Autism Awareness Day) 입니다. 파란색 조명을 밝히거나 파란색 옷을 입는 것으로 "Light it up blue"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Spring Santa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4월 중으로 선물이 배달될 예정이었으나 자택대피령 (Shelter-in-place)이 내려짐에 따라 연기합니다.

4. 원미니스트리 여름 캠프 등록은 일단 3월 31일로 마감되었습니다. 2차 등록이 오픈되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5. 4월로 예정했던 2020-2021년도 꿈글학교 등록을 잠시 연기합니다. 등록 시기가 정해지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1. 따뜻한 Hug를 전하는 Kare Bears

1.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는 요즘 '마음의 거리'를 좁혀 주는 따뜻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Kares4kids라는 단체에서 원미니스트리의 꿈글 학생들을 위해 곰 인형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3월 14일 오후 2시에 프라미스 교회 로비에서 Kare Bears 전달식을 간단하게 가졌는데, 곰인형만큼이나 마음과 미소가 따뜻한 Hailey Koo님이 대표로 오셔서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인형마다 직원들의 손글씨로 적혀있는 사랑의 메세지도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날 전달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곰인형은 모든 프로그램이 재개된 후에 전달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뜻한 Hug를 해줄 곰인형을 꿈글학교의 어린 장애학생들에게 빨리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 2020 Summer Camp (7/6 ~ 7/24)

원미니스트리 여름 캠프는 매년 7월에 3주 동안 열립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비해 일찍부터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3월 7일부터 장애인 학생과 봉사자 등록을 동시에 시작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캠프 진행 자체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더라도 장소, 교사, 특별 강사, 봉사자 섭외와 세션별 프로그램을 짜는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프 진행 여부나 일정에 변경이 생긴다면 교육부에서 부모님들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캠프 문의: 교육부 담당 윤보라 470-330-9086)

3. 꿈글학교 가정 학습 제안서

꿈글 학교 휴강이 길어짐에 따라 학교측은 가정 학습을 위한 제안서를 금요일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서 교사와 진행하던 개별화된 플랜은 아니지만 비전 캠퍼스 (학령기의 학생들로 구성)와 프라미스 캠퍼스(대다수 성인으로 구성) 사이에는 일부 자료의 차이를 둔 플랜입니다. 한국의 초중고 특수 교사들이 가정 학습을 위해 제작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국어/사회/보건 위생/과학/미술 등 여러 과목을 번갈아 가며 넣었으며, 가정 학습을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 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이나 가정 학습에 대해 일반 교육 현장보다 어려움이 있고 부모들의 역할 비중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제안서는 말 그대로 제안이므로 각 가정의 상황과 자녀 특성에 맞추어 학습하도록 권면해드립니다. (가정학습 문의: 꿈글 교장 윤보라 470-330-9086)

4. 힘내자 대한민국! Play 하트

한국의 하트하트 재단이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힘내자 대한민국! Play하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The ABLE Orchestra의 플룻 연주자 안수민 (PeterAn, 29세)님도 참여하여 연주 영상과 응원의 영상을 보냈습니다. 정미경 지휘자의 피아노와 함께 Amazing Grace를 연주하는 안수민님의 영상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특별히 작년 10월부터 플룻을 연주하기 시작한 안수민님의 늘 새로운 도전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미니스트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www.facebook.com/oneministry.atl>)

5. 1st COVID-19 극복 응원 이벤트: Spring Santa

원미니스트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지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이 이벤트는 원미니스트리 가족들의 COVID-19 극복을 응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꿈글 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가정 학습 제안서를 따라 수업을 하시도록 동기 부여를 하고,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Spring Santa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3월 28일 가정 학습 제안서 중, 미술 수업 <낙화 그리기>에 참여하고 나서 작품 사진을 찍어 학교측에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한 학생과 가정에 감사드리며,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4월의 Spring Santa 가 전하는 선물이 배달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뤄지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 내세요!

(첫 페이지에서 이벤트 출품작을 구경하세요.)

Tea with ONE Ministry Family

다섯번째 이야기: 유머가 넘치는 연주자, Mr. David Song

만남 날짜: 2/24/2020

만남 가족: 송준호 (David Song) 형제 가족

만남 일행: 김창근 목사 가족

흰 셔츠에 까만 나비 넥타이를 매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이빗 형제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보셨다면 누구라도 ‘참 잘 어울리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데이빗 형제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밴 젠틀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꿈글에서 만난 이후로는 유머가 넘치는 대화로 늘 저를 웃게 만들어주는 친근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 날 데이빗 형제와 어머니, 그리고 김창근 목사님 가족이 만나 유쾌한 점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어머니로부터 살아오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데이빗 형제로부터 들은 옛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데이빗형제와 원미니스트리가 함께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스쳐갔습니다.

Q: 데이빗 형제는 꿈글 학교를 정말 좋아하는데, 어떤 점이 좋으세요?

A: 꿈글 학교 친구들이 다 착해서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좋아요.

Q: 작년 여름 캠프 때 줄넘기 놀이를 제안해 주어서 모두 신나게 했던 일 기억나나요?

A: 네...꿈글 학교에서도 줄넘기 했으면 좋겠어요.

Q: 그러면 좋겠네요. 혹시 꿈글 학교에 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 꿈글에서 성화가 운동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라고요. 다른 애들도 제가 더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도 안 싸우게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도와주고요.

Q: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아드님 보시면서 어떠세요?

A(어머니): 악기 연주를 다시 하게 된 게 너무좋아요. 오케스트라나 꿈글 음악 시간에 한 시간 집중하고 연주에 몰두하는 걸 보면 정말 좋아요.

Q: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김창근 목사님과 테니와 LA 를 여행하고 싶어요. 언제 같이 꼭 가요, 목사님.

LA 여행이야말로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수 있으니 머지않은 때에 꼭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원숙한 연주자가 되기를, 누구에게나 유머로써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데이빗 형제를 비롯하여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2. 휴스턴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리차드 가족이 잘 지내기를
3. 장애인 사역에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CORONAVIRUS TIPS

4개월 이상 실시간 검색어, 뉴스 토픽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려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19루머', '코로나 거짓뉴스'에 현혹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벼운 팩트 체크로 코로나 바로 알고 갑니다.

1. 손 세정제는 효과가 없다?? (X)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손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여름 더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앤다?? (X)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가 발표한 바로는 여름 더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멈출 가능성은 작다고 해요. 보고서에 중국 광시 좡족자치지구나 싱가포르 같은 열대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번식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비 분석 결과들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3. 공중 화장실 비누를 이용하면 감염이 된다? (X)

여러 사람들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공중 화장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비누 표면에서 생존하는 시간은 길지 않으며, 남아 있다하더라도 흐르는 물에 거품을 내어 비비면 다 흘러 내려가서 안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4. 코로나 자가진단법 맞을까?? (X)

10초 이상 숨을 참고, 기침이나 답답하지 않으면 폐 섬유증이 없는 것이다...물론 거짓입니다. 폐 섬유증은 환자가 치료 받으면서 격는 후 유증 중에 하나로 코로나 환자가 모두 폐렴 증상을 겪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폐 섬유증 의심과 코로나 자가진단과는 연결짓기 힘듭니다.

5.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 예방된다?? (X)

아마 바이러스가 높은 온도에서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루머인 듯 합니다. 사실 가글을 자주 하거나 공기 청정기 등도 코로나 19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돌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X)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마스크 재사용 가능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마스크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필터가 손상되어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세탁하는 방법도 필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정말 갖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김치가 도움이 된다더라, 마늘이 예방한다더라, 이 바이러스가 생물학 무기라더라 등등...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루머 속에서, 이 시기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지 않고 지나가기를 바라며 확실한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손 잘 씻기!! 기침은 팔뚝에 하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문제 행동 중재, 우리는 왜 실패할까

글: 정유진 (부모/ 유아특수교육석사/ 국제행동분석가)

발달장애 전 연령에 걸쳐 요즘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단연코 문제 행동 중재에 대한 것입니다. 놀이와 교육, 자립과 직업 등과 관련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문제라면 현 시점에서 관찰할 수 없거나 온전한 수행이 어려운 작업이나 활동, 행동을 새로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새로 습득한 행동이 미비하더라도 그 만큼을 해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행동의 중재는 이와는 다릅니다. 현재 극렬한 강도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행동을 어느 수준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는 감히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문제행동 중재의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 보기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중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히 그 행동이 그만큼 힘든 것이기 때문에, 또는 당사자의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결론짓기 쉽습니다. 특정 장애를 실패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자폐 1급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온다는데 (문제 행동이 있을까봐, 심할까봐) 걱정이예요.”라는 말도 들곤 합니다. 문제 행동 중재,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교, 치료실,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작업장, 평생교육센터, 거주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 등 발달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곳에서 문제 행동은 보고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소연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뭔가를 하긴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들 하지요. 이 시나리오 안에는 많은 실패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